

어린이 책꽂이

▲나눔을 실천한 따뜻한 강철왕 카네기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산업화와 일본 주의를 이끌고 미국 경제를 발전시킨 강 철왕 카네기의 삶을 그린 위인전.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부를

일군 후 사회복지 위해 재산을 환원한 그의 기부는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도서관에 간 사자=어느날 도서관에 사자가 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책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자가 도서관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 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된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꽃이 피는 아이=온몸에서 꽃이 피어나는 주인공 소년 링크 보와르니 장애를 극복하고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까지의 과정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장애를 소재로 한 우울한 분위기의 책들과 달리 산뜻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곁들인 스토리가 경쾌한 느낌을 준다.

〈느림보·8천500원〉

▲노란별=평화와 평등을 실천했던 덴마크 크리스티안 왕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다. 유대인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나치군 대가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하자, 크리스티안 왕은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든 덴마크 백성은 하나'라며 다같이 노란별을 달자는 뜻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해와 나무·8천500원〉

▲건축물에 얹힌 12가지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우리 전통 건축문화재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그 건축물에 얹혀 있는 역사를 들려 준다.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꽂히는 부석사 무량수전 등에 얹힌 흥미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린이 작가정신·9천500원〉

지름 21.2cm 다뉴세문경에 1만3천개 선 어떻게 새겼나

한국 7대 불가사의 이종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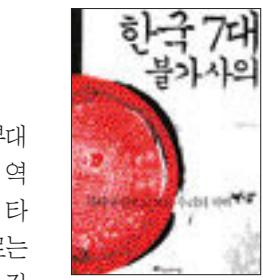
기원전 3세기 필론이 선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였다. 필론이 언급한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공중정원 등 7가지 불가사의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 뿐이다.

건축공학과 과학 전공자로 이미 '세계 7대 불가사의' 등을 꿰낸 바 있는 이종호씨는 우리 선조들도 분명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유산을 남겨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전공을 살려 오랫동안 우리 문화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그가 평년 '한국 7대 불가사의'는 천문학, 청동기 문명, 철기문명, 인쇄술, 함포 전술, 문자 등 역사의 지평을 넓힌 유산을 '과학'이라는 객관적인 틀과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 해석한 책이다.

1960년대 충남지역에서 발견된 국보 141호 '다뉴세문경(多紐細紋鏡·잔무늬 거울)'은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거울 뒷면의 무늬는 동심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활용한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칸탄을 받아왔다.

다뉴세문경의 지름은 고작 21.2cm. 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 무려 1만 3천개의 선이 3mm 간격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다. 종이에 그린다 해도 쉽지 않았을 작업을 확대경과 정밀한 제도 기구가 없었던 기원전 4세기에는 선조들은 어떻게 청동을 녹여 주물로 만들어냈을까.

다뉴세문경의 아름다움과 불가사의함은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매료시켰고 국내외 많은 인재들이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 수차례 복원작업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2006년에야 성공한 것을 보면 기원전 4세기 조상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가 중국을 상대로 거듭 승리를 거두고 대륙을



청동기 시대의 불가사의 다뉴세문경.



천문학·인쇄술·함포 전술·문자…

'과학 유산' 통해 민족 우수성 확인

기록된 레판토 해전보다 190년이나 앞선 시대에 화포를 선박에 장착해 왜구를 물리쳤던 '고려 수군의 함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8개의 문자 체계로 이루어진 '훈민정음', 금과 육으로 상감한 '신라의 황금 보검', 기원전 3천년경부터 천문을 관측했음을 보여주는 '고인돌 벽화' 등을 '한국의 7대 불가사의'로 꼽았다.

재미있는 정보 하나. 스위스의 베버가 설립한 'N7W (New 7 Wonders)' 재단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 7대 불가사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피라미드를 포함 만리장성, 알코르바드, 타지마할 등 모두 21개 후보가 올라와 있으며 오는 7월7일 오전 7시 7분 결과를 발표한다.

〈역사의 아침·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카뮈 삶 이면에 숨어있는 내적 모습 파헤쳐

카뮈, 지상의 인간 로트먼 지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사망한 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빈민촌에 사는 할머니와 벙어리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 철학교수가 되려 했지만 결핵 때문에 포기하고, 소설을 써 노벨문학상까지 탄 천재 문학가. 점령국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불의의 교통사고로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부조리'한 인간.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1913~1960)의 이야기다. 미국 출신 전기작가인 허버트 R. 로트먼이 1979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카뮈, 지상의 인간'(전 2권)이 1997년 개정판을 토대로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저자는 카뮈의 극적인 삶 이면에 숨어 있는 내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뮈와 만나기도 했던 저자는 전기를 통해 카뮈의 내면을 철자하니 파헤친다. 카뮈의 유년기와 학창시절에 대한 묘사들은 프랑스 첫 출간 당시 카뮈의 상속자들로부터 '비밀공개' 혐의로 출판금지 소송을 당해야 했을 정도. 〈한길사·각권 2만5천원〉



생태주의 놀이 몸소 실천한 '노리단' 이야기

일하며 논다, 배운다 김종휘 지음

단장 김종휘씨 등이 쓴 '일하며 논다, 배운다'는 스스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이상한 악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21세기 풍물패'로 표현하는 '노리단'의 이야기다. 이들은 지난 2004년 하자센터에서 생겨나며 150여회의 공연과 1천여회의 워크숍을 통해 생태주의 놀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노리단'은 공연단,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센터, 악기발전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작곡가, 배우, 설치예술가, 사운드 디자이너, 악기제작자와 같은 전문영역 종사자는 물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학부모 등 8~40살 까지 3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독특한 문화공동체다.

1부 '노리단과 만나기'에서는 '학교이자 회사이며 공방'으로 돌아가는 노리단의 통합적 조직 방식과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는 단원들의 이야기가 사례 별로 묶여 있다. 2부 '노리단과 놀기'는 이들만의 독특한 놀이법을 소개한다. 노리단 영상 모음 DVD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민들레·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김월용 '한국고고학개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혹은 작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스님들의 말씀을 적어 놓은 불교서적이 많다.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종교적이거나 교양적인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까이 두고, 가장 많이 본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전문적인 서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책을 통해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기에 나에게는 소중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고고학을 개척하신 고삼불 김선생님에 의해 1973년에 처음 출판된 것이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첫 고고학 수업을 받을 때, 초로의 교수인 칠관에 유적과 유물의 명칭을 써 가면서 고고학의 성격을 열심히 설명해 주시던 기억이 새롭다.

이후 대학 강의실과 박물관 등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고고학에서 유물에 대한 관찰과 실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진실성을 강조하였다.

유물에 대한 관찰의 중요성



이 책의 내용은 서장에서 한국고고학의 성격을 정의하였고, 다음 장부터는 구석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각 시대별로 개관하고, 더불어 중요한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면서 각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을 정리해 두었다.

서장에서 "고고학을 역사학의 한 분과이면서 독립적·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과학한 것은 당시로서 적절한 인식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고학이 다른 학문과 차이가 나는 독자적인 분야로 거듭나고 있다.

또 이 책 속에는 선생님의 독창적인 학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원삼국시대론'으로 많은 논쟁거리이다. 즉 기원전후에서 300년경을 삼국시대의 초기라는 의미에서 원삼국시대라 명명하였는데 아직도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선생님의 학설들은 일부 수정되고 보완되었지만 한국고고학의 틀을 형성하였고, 한국고고학의 초석이 되었다. 또 지금과 같이 한국고고학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고고학에 대한 선생님의 남다른 애정과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 낸 선생님의 업적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아직 한국고고학이 자리 잡지 못한 시기였고, 고고학의 연구성과도 극히 적었던 시기였다.

이후 두 차례의 개정판을 통해 새로운 고고학 연구성과가 덧붙여졌으나 1986년 이후에는 더 개정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최근 고고학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어 새롭게 학계를 이끌어 주시던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최성락

〈목포대학교 박물관장〉

movies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Happy Time

구. 편언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영화안내

M관 300 (18세) 최고급관
2관 300 (18세)
3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4관 브레이크업: 이별후애 (15세)
5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12세)
6관 페인티드 베일 (12세)/쏜다 (15세)
7관 일루셔니스트
8관 수 (18세)
9관 넘버23 (15세)

Megati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로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별 고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비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joycbc.com/ 1588-7941

대가박스

구. 편언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Happy Time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joycbc.com/ 1588-7941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일루셔니스트 (15세)
2관 바람피기 좋은날 (18세)
3관 1번가의 기적 (15세)
4관 복면달호 (12세)/스모킹에이스 (18세)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행복을 찾아서 (전체)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주주시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토·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티켓, 고생 1,500원 할인(공휴일제외)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일루셔니스트 (15세)
2관 바람피기 좋은날 (18세)
3관 1번가의 기적 (15세)
4관 복면달호 (12세)/스모킹에이스 (18세)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행복을 찾아서 (전체)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주주시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토·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티켓, 고생 1,500원 할인(공휴일제외)

콜롬버스 시네마 상문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관로변)

1관 브레이크업: 이별후애 (15세)
2관 1번가의 기적 (15세)/나비효과 2 (15세)
3관 쏜다 (15세)
4관 넘버23 (15세)
5관 페인티드 베일 (12세)/리플러너 (12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300 (18세)
8관 일루셔니스트 (15세)
9관 수 (18세)
10관 300 (18세)

* 토요 최대 주차장 @매일설마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해마다 (10주)
전체리 상영증

1588-794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쏜다 (15세)
2관 그여자작사, 그남자작곡 (12세)
3관 300 (18세)
4관 넘버23 (15세)
5관 수 (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일루셔니스트 (15세)
8관 1번가의 기적 (15세)
9관 브레이크업: 이별후애 (15세)

* 리버사이드홀 무등극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대가박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인터넷 예매 문의
* 전시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joycbc.com/ 1588-7941

대가박스

구. 편언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Happy Time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joycbc.com/ 1588-7941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일루셔니스트 (15세)
2관 바람피기 좋은날 (18세)
3관 1번가의 기적 (15세)
4관 복면달호 (12세)/스모킹에이스 (18세)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행복을 찾아서 (전체)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주주시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토·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티켓, 고생 1,500원 할인(공휴일제외)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일루셔니스트 (15세)
2관 바람피기 좋은날 (18세)
3관 1번가의 기적 (15세)
4관 복면달호 (12세)/스모킹에이스 (18세)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행복을 찾아서 (전체)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주주시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토·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티켓, 고생 1,500원 할인(공